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.
- 일일금융정보 뉴스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아메리카 측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슈로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.

[미국 경제]

- Reuters: 미 소비자 신뢰도 예상 외 하락...노동 시장 우려
- Bloomberg: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 지연 시, 미 경제 불투명
- Bloomberg: 연준 부의장 Jefferson, "물가와 일자리 둘 다 리스크"

[미국 금융]

- CNBC: JP모건, 세계 최초의 완전한 AI 기반 대형은행으로 거듭난다
- JP모건 보고서: 트럼프 관세, 대법원 판결 관계없이 지속될 듯

[물류]

- WSJ: AI 덕분에 물류 대기업 침체 속에서도 성장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트럼프, 셧다운 앞두고 대규모 해고 위협

[무역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, 셧다운 앞두고 관세 관련 조사 진행 예정
- WSJ: ADB, 미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성장을 하향 조정

[오일]

- Reuters: 유가 전망 안정적...러시아 원유 생산량 불확실해
- YahooFinance: Exxon, 일자리 2천 개 줄인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Business: 7,500달러 전기차 세액 끝나면 가격 어떻게 되나?
- CNBC: Coach, Z세대에 발맞춰 커피숍 오픈
- CNBC: 헤르츠, 온라인 자동차 구매 허용

[미국 경제]

Reuters: US consumer confidence weakens in September on labor market worries

미 소비자 신뢰도 예상 외 하락...노동 시장 우려

- 9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외로 하락했다. 오늘 화요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3.6 포인트 하락한 94.2를 기록했다. 이는 전문가 예상치 96보다 낮았다.
- 이 기관의 관계자는 1)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은 평가는 지난 수개월 동안 훨씬 덜 긍정적이었으며 2) 현재 일자리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지난 9개월동안 계속 하락해 지난 수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. 한 마디로 이같은 현상은 일자리 공급 하락과 일자리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다.

Reuters 기사

Bloomberg: US Economy Will Only Get Murkier If Key Data Is Delayed in Shutdown

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 지연 시, 미 경제 불투명

- 연방정부 셧다운 될 경우 많은 부처의 운영이 중단되고 비필수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게된다.
- 이에 따라 연방통계국이 셧다운 발생시 고용 수치 발표가 지연되는데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발표가 늦춰지게 되어 경제 상황 판단이 어려워진다.
- 또한 이로 인해 기업들과 사업체 CEO들이 더욱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, 더 육이 경제 관련 최근의 정부 통계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

는 것이다.

Upcoming Data at Risk of Delay

Key economic reports likely to be affected by a government shutdown

Indicator	Scheduled date
Initial jobless claims	Oct. 2, 9, 16
Monthly jobs report	Oct. 3
Trade balance	Oct. 7
Consumer price index	Oct. 15
Retail sales	Oct. 16
Producer price index	Oct. 16

Source: Bloomberg
Note: Impact will depend on length of any government shutdown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Fed's Jefferson Sees Risks to Both Inflation, Jobs Goals 연준 부의장 Jefferson “물가와 일자리 둘다 리스크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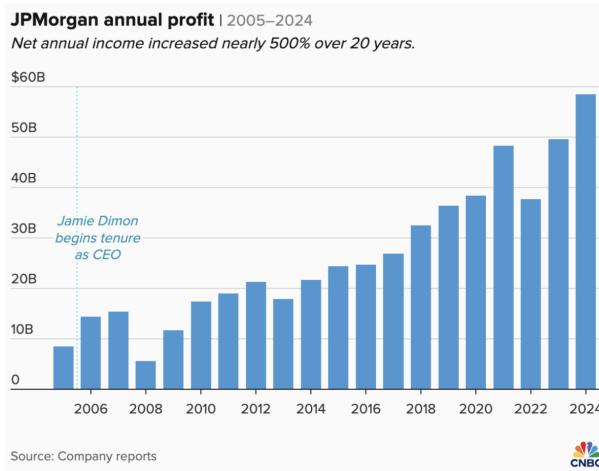
-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는 연준이 인플레 압력 증가 부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둔화 리스크까지 겪고 있다는 말했다. 한마디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.
- 그는 고용 리스크가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고, 인플레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면서 “앞으로 고용과 인플레 압력은 완화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- 그는 1) 새로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와 2) 변화하는 전망 3) 리스크의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정책의 적절한 스템스를 계속 평가하겠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Here's JPMorgan Chase's blueprint to become the world's first fully AI-powered megabank JP모건, 세계 최초의 완전한 AI 기반 대형은행으로 거듭난다

- JP모건의 LLM Suite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8주마다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더욱 다양해졌다.
- JP모건의 분석 책임자 Derek Waldron은 “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해 모든 직원에게 AI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,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, 고객 경험에 AI 안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것”이라 전했다.
- Waldron은 LLM Suite 프로그램이 약 30초 만에 투자 제안과 자문 내용을 담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을 선보였다. 이는 이전에 애널리스트 팀이 몇 시간씩 걸려 완료해야했던 작업이었다.
- 현재 약 25만 명의 JP모건 직원들이 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, 이들 중 절반이 거의 매일 이 플랫폼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한다.
- Waldron은 이에 대해 “AI가 회사 구조에 필수적으로 넣어질 것”이라며 이러한 우위 선점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여 더 빠르게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

CNBC 기사

JP모건 보고서: Tariffs on Trial: Delays Rather than Derailment: Tariffs likely to endure irrespective of Supreme Court decision
트럼프 관세, 대법원 판결 관계없이 지속될 듯

- 트럼프의 '미국 우선주의' 정책들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대법원 판결로 향하고 있다. 그의 정책들은 관세, 이민, 해외 원조, 연방 공무원 해고조차, 부처 폐지, 출생 시민권과 성 전환 제한 조치들이다.
- 현재까지 트럼프 정책에 대해 도전하는 연방하급법원 명령에 대해 대법원은 중지 또한 하급판결 폐지가 16건이 되었다. 한건만 지지 결정을 내렸다.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'고무 도장' 기관일 수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.
- 무역 및 법률 관계자들은 올해 말 전에 관세를 합법화하는 트럼프의 긴급행정권한(IEEPA)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70~80%로 보고 있다. 그러나 대법원이 IEEPA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있다. 즉, 122, 232, 301, 338 조항 등이다.
- 그러나 이같은 좁은 의미의 조항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취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, 단기적으로는 관세율이 실제로 낮아질 수 있다.
- JP 모건 팀에 따르면 현재 나타나는 미 관세율은 예상보다 더디게 증가해 7월에 9.7% 상승해 현재는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16%를 유지하고 있다.
- 많은 미 관세 조치들은 8월 1일부터 유효하며 8월까지 총 관세 매출액이 1천6백50억에 달하고 있으며 연방 적자는 2025년 회계연도에 GDP의 6.1%, 2026년에는 6.4%로 전망되고 있다.
- 향후에 예상되는 관세 모 전망은 관세 면제와 징수 관련된 문제점 등으로 의회예산실(CBO) 예상치 4조 달러에 못미칠 수 있다.
- 관세에 대한 대통령 긴급권한(IEEPA)을 거부하는 판결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, 트럼프가 IEEPA가 아닌 다른 관세 조항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랠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.
- 앞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11~15일 셧다운 가능성이 70%가 된다. 그러나, 트럼프의 감세 예산법을 통해 부채 상한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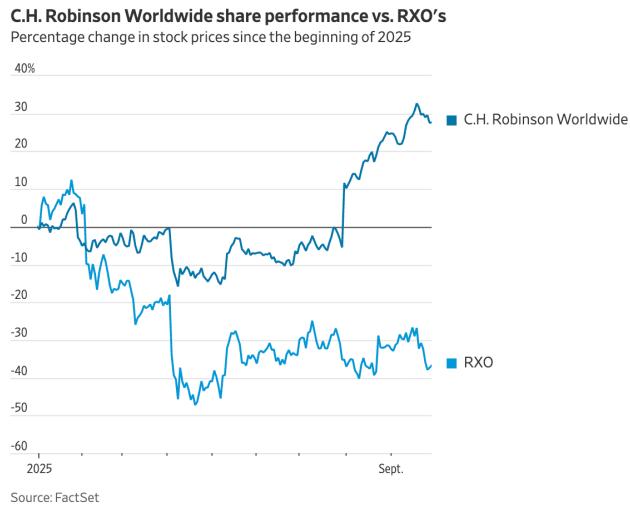
JP모건 보고서 원문

[물류]

WSJ: How AI Helps a Logistics Giant Thrive During a Downturn
AI 덕분에 물류 대기업 침체속에서도 성장

- 물류 대기업 C.H. Robinson는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8천8백만불 늘어난 3억9천3백억불을 기록했다.
- 이 같은 성과는 효율적인 운영 모델과 AI 채택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화물 종재 처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.

- 이 회사의 직원은 지난 6월말 현재 1만2천8백58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0% 줄었다.



WSJ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Trump Threatens Mass Firings as Federal Shutdown Deadline Nears 트럼프, 셧다운 앞두고 대규모 해고 위협

-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 정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자 트럼프는 셧다운을 앞두고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 시키겠다고 위협했다.
- 백악관은 연방 부처에 셧다운시 대규모 해고 방안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들 부처들은 셧다운 대비 방안에 해고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.
- 셧다운이 되면 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연방 정부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연방 부처들의 운영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트럼프와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무역전쟁]

Bloomberg: Trump to Keep Tariff Probes Running Through Government Shutdown 트럼프, 셧다운 앞두고 관세 관련 조사 진행 예정

-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발생해도 관세 관련 행정부의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. 이를 통해 추가 관세의 기반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.
- 구체적으로 연방 상무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. 국가안보가 이같은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를바 무역확장법 232 조항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목재, 반도체, 항공기 등 여러 품목의 예상 여파를 조사하게 된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ariffs, Uncertainty to Slow Asia's Economic Growth, ADB Says ADB, 미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성장을 하향 조정

- ADB(아시아개발은행)은 올해 아시아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미 관세 때문에 4.9%에서 4.8%로 하향 조정했다.
- 이들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WTO나 자유무역협정 국가들보다 실효 관세가 28.1% 포인트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.
-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1.5%에서 0.8%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인도의 경우도 높은 미 관세 부과로 올해 성장률이 6.7%에서 6.5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.

WSJ 기사

[오늘]

Reuters: Oil price outlook steady as rising supply offset by concerns over Russian output: Reuters poll
유가 전망 안정적...러시아 원유 생산량 불확실해

- OPEC+과 비OPEC 생산국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가는 안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는 러시아 원유의 생산량이 불확실해지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이다.
- 브렌트유는 평균 67.6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, 이는 지난달보다 불과 4센트 낮다.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평균 64.39달러로 예상되며, 이는 8월 전망치인 64.65달러보다 높다.
-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에 제재 또는 공격이 가해지거나 모스크바의 정책이 바뀌면 공급이 더욱 억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.

Reuters 기사

Bloomberg: Exxon to Cut 2,000 Jobs in Global Restructuring
Exxon, 일자리 2천 개 줄인다

- 석유 회사 Exxon이 장기 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,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다. 이번 감원은 전 세계 인력의 약 3~4%에 해당한다.
- Exxon이 약 70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Imperial Oil Ltd.는 월요일 전체 인력의 20%를 감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.
- Exxon의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직원수는 61,000명으로, 2019년 대비 약 20% 감소했다.



YahooFinance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NBusiness: Goodbye to the \$7,500 EV tax credit. What's that mean for EV prices?

7,500 달러 전기차 세액 끝나면 가격 어떻게 되나?

- 10월 1일에 7천 5백 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,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확실하다.
- 실질적으로 가격은 즉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연말 3개월 동안 판매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, 이 가격 인하가 세액 공제 종료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- 애널리스트들은 “현재 가격으로도 차량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, 세액 공제 종료 시에는 차량을 판매할 방법이 더욱 없어질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면서 수요 감소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. 이는 일부 차량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인데, 이에 따라 가격 인하 압력이 완화될 수도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CNBC: Coach is serving up coffee with handbags as it looks to build on Gen Z success Coach, Z세대에 발맞춰 커피숍 오픈

- 핸드백 제조업체 코치가 매장과 연결하여 코치 커피숍을 오픈했다. 티라미수, 말차 음료 등 Z세대의 유행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
- 코치 CEO Todd Khan은 이에 관해 “젊은 소비자들은 완벽한 경험을 원한다”고 말하며 매년 전 세계에 12~15개의 커피숍을 오픈할 계획이라 밝혔다.
- 또한, 젊은 세대들이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고 덧붙였다.
- 코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뉴저지주와 텍사스주, 중국, 일본, 한국 등 전 세계에 16개의 커피숍을 선보였다.
- 이는 소비자들이 음료나 간식과 함께 다른 상품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지금까지의 매장 상품들은 커피숍 전체 매출의 약 30%를 차지하며 코치의 주요 매출 원동력이 되었다.

CNBC 기사

CNBC: Exclusive: Hertz will let customers do almost entire car buying process online 헤르츠, 온라인 자동차 구매 허용

- 렌트카 회사 헤르츠가 화요일에 자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차량 구매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.
- 이전에는 웹사이트에서 차량 목록만 제공하고, 대부분의 구매 과정은 미국 내 헤르츠 지점에서 이루어졌었다.
- 헤르츠 CEO Gil West는 이러한 업데이트가 고객 서비스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 밝혔다.
- 이들은 개인 고객 뿐만 아니라 딜러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기도 하며, Autotrader, Carvana 등 다른 중고차 구매 플랫폼에도 차량을 등록했다.
- 이들은 올해 2분기 실적이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